

지평선 없는 희망: 시리아의 인내하는 신앙의 신학

여행을 갈 때마다 — 그것이 시리아 안의 짧은 이동이든, 해외로 가는 비행이든 — 꼭 반복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늘 가장 큰 여행가방을 고릅니다.

그럼 아내가 웃으며 묻습니다.

‘이걸 다 가져가야 해요? 사막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모르겠어요...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는 고정된 가족 농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리아인에게 여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늘 숨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정치적인 이유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공항에서 항상 보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가벼운 짐을 듭니다.

그런데 커다란 가방 두 개를 힘겹게 끌고 가는 사람을 보면,

저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시리아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짐을 많이 싸는 건 단지 물건을 많이 들고 다니는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함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뿐 아니라, 혹시 필요할지도 모를 것까지 챙기는 법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무거운 가방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상징,

그리고 어쩌면, 확실성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것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밤을 지나 살아남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불확실함과 희망 사이의 틈에서 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시리아는 ‘영원한 아마도(permanent maybe)’라는 상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아마도 내일은 전기가 들어올 것이다.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꿈을 마치 유리처럼 조심스럽게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끝날 거야.’

하지만 전쟁과 유랑의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은 날짜를 세는 걸 멈췄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

지평선이 사라진 길 위에서도 계속 걸어가는 법을.

하지만 이런 경험이 시리아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가자, 수단, 레바논, 우크라이나 —

내일이 어떤 모습일지 모른 채 눈을 뜨는 모든 곳에서 이 경험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함의 땅 가운데, 제 안에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커졌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새롭게 이해하는 신학이었습니다.

책이나 학회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살아남는 매일의 행위 속에서 태어난 신학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평선 없는 희망(Horizonless Hope)’ 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평선 없는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실천하는 희망입니다.

안개 속에서도 계속 걸어갈 용기입니다.

터널 끝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

터널 안에서 스스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리아의 극작가 사달라 와누스(Saadallah Wannous)의 이야기를 늘 기억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희망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희망은 기분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를 인간으로 남게 하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리아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희망할 운명’일 뿐 아니라, ‘상황 속에 묶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어요.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지평선 없는 희망’은 좋은 날을 위한 여유로운 사치가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날을 위한 영적 산소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때조차,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고, 믿을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그것은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낙관은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상황이 나아지지 않더라도 신실하게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때로 인생은 마치 이런 풍경과 같습니다 —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길.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계속 걸어 가야 한다는 것만 압니다.

그것이 바로 지평선 없는 희망입니다.

제 마음에 깊이 남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1-23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뒤에 쓰였습니다.
도시는 폐허였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지평선도, 계획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이것이 바로 ‘지평선 없는 희망’의 핵심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 선포되는 희망.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희망이 아니라, 폐허 속에서도 의미를 만들어내는 희망입니다.

또 하나의 본보기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여정은 지도가 아니라 관계로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은 GPS가 아니라, 부르신 분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반복되는 이 패턴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길의 끝이 아니라, 안개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광야의 모세, 동굴의 엘리야, 폭풍 속의 제자들.
모두에게 희망은 불확실성의 해소가 아니라,
그 불확실성의 변화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지평선을 볼 필요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음을 믿으면 된다.’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인내하며 증언을 이어가세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평선 없는 희망이 곧 인내입니다.
그것은 결코 증언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리아에서의 인내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배당에 3명밖에 없어도 교회를 여는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폭격 중에도 지하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믿지 못하면서도 도시 전체에 구호품을 나누는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기 행동이 변화를 만들 것이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랑을 실천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증언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저에게 '증언 속의 인내'란,
새벽이 올 때까지 빛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지평선이 사라졌을 때 스스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보여야 할 모습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더 큰 교리나 더 화려한 조직이 아니라,
보장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히 희망을 선택하는 공동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인간적이고, 자비롭고, 신실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학이란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미래가 사라졌을 때도 신앙을 지탱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 무거운 여행가방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어쩌면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지평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적지를 볼 수 없어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지평선 없는 희망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안개 속에서는 아무도 혼자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에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확실성에 의존하지 말고,
서로에게 기대하고 — 그리고 은혜를 구하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한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지평선 없는 희망의 신학을 배우게 하소서.
끝이 보여서가 아니라,
우리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쩌면 — 정말 어쩌면 —
지평선 없는 희망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신앙의 가장 순수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